

1918년 비오네의 이브닝 드레스 실물제작에 관한 연구

김문숙 · 김현주 · 유진경 · 문신애 · 임수진 · 서현수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복식의 미적인 형성은 직물이라는 물적 재료에 의한 공간상의 구성으로 그 복식 특유의 감각적 소재를 매개로 하여 디자이너가 선택한 공간 구성 형식과 결합되는 조형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조형으로서의 복식은 20세기에 들어서 현대 조형이 추구했던 19세기의 과잉 장식에서 벗어나 기능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형태를 추구하고, 순수성의 지향을 주장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단순한 옷감의 구성에 의해 자연스러운 신체를 나타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예술개념인 기능주의를 따르며 인간을 위한 체형 창조를 목표로 하고 인간의 자연미를 강조하는 단순한 형태의 복식을 창조한 비오네(Vionnet)는 그녀만의 바이어스 재단(bias cut)을 개발하여 신체와 재질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녀의 조형방법을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시켜 조형적, 장식적, 구성적 특수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1918년 이브닝 드레스를 선정하여 「Patterns of Fashion 2」에 기초를 두고 제작하였으나 문헌상의 패턴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입체재단(Draping)을 병행하여 해결해 보았다. 입체재단법은 인체의 특성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방법일 뿐 아니라 평면패턴으로는 제작하기 어려운 디자인을 자유롭게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1918년 이브닝 드레스는 검정색 크레이프 새틴으로 된 쥬아브(zouave) 헵라인과 작은 트레인이 달려있으며 같은 소재의 장미로 장식되었다. 쥬아브란 알제리아의 복장을 본 따서 만든 프랑스 육군의 알제리아 주둔복을 말하는 것으로 도련의 드레이프가 밴드로 여며져 있는데 이 드레스는 최초의 쥬아브 헵라인 중 하나로 'The Queen'의 1917년 1월호에 소개된 후 1918년 많은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전체 구조는 바디스와 허리밴드 그리고 스커트로 이루어진 원피스로 허리밴드 위에 두 줄의 장미장식밴드를 달아 완성된다.

실물제작을 위한 머슬린 실험에서 「Patterns of Fashion 2」에 실측되어있는 치수대로 평면패턴을 제작한 후 재단하여 스커트와 허리밴드를 제작하였으나 바디스 패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물 그림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조합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비대칭으로 구성된 이 패턴은 실물과 같이 오른쪽 여밈으로 조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틀어질 뿐 아니라 가슴부분의 형태가 잡히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을 시도해 보았으나 제시된 패턴으로

는 이러한 실루엣의 바디스를 제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문헌상에 제시된 치수를 기본으로 바디를 주문 제작한 후, 입체재단으로 바디스를 제작하였다.

바이어스로 접어 두 겹으로 이루어진 바디스는 앞 중심에 개더가 잡히고 뒷부분은 써프리스(surplice) 형식으로 여며지며 스커트와 연결되는 허리밴드에 맞추어 박힌다. 전체가 한 쪽으로 오른쪽 옆선에서만 박혀지는 스커트는 한쪽 코너는 뒤에 작은 트레인을 형성하고 다른 코너는 양쪽 다리의 단으로 만들어진다. 다리부분은 각기 패턴에 명시된 대로 맞추어 나선형으로 박게 되어있으며 개더가 잡히고 끈을 달아 발목에서 묶여 쥘아브 특유의 실루엣을 나타내게 한다.

장식된 장미는 드레스와 같은 검정색 크레이프 새틴으로, 지름이 9" 되는 원으로부터 나선형으로 재단되어 말아 만드는데 완성된 지름의 치수는 4" 로 16개가 필요하며 이 꽃들은 바이어스 방향의 한겹 새틴 장식밴드를 두 줄 만들어 하나는 허리밴드 상단에 부착하며 다른 하나는 허리밴드 아래쪽에 달려 모든 박음질과 허리밴드의 솔기가 감춰지게 된다. 이 장식밴드들은 걸감에 맞추어지도록 다아트가 잡히기도 하며 상단에는 7개, 하단에는 9개의 장미가 달린다.

1910년대 파리의 의상계에 나타났던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으로 이국적 취향의 장식적인 경향을 가진 1918년 이브닝 드레스는 비오네의 특기인 바이어스 재단과 드레이프성을 발휘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그녀가 즐겨 사용했던 장미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한층 여성스러운 드레스로 완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복식을 문헌에 의해 실물제작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입체재단을 병행하여 보았으며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디자인의 원천으로 과거의 복식이 쓰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앞으로 유용하리라 생각된다.